



탱커 중고선가 하락, 중국의 드릴쉽 협의, 일본의 CAPA. 증가

코멘터리 대표 차트

탱커 중고선가 하락...

① 지난주 중고선가지수는 88P 제자리를 지켰지만 탱커 VLCC, Suezmax의 중고선가가, 그리고 VLCC ~ Aframax 리세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상반기 강했던 탱커 발주 사이클도 정점은 지난듯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VLOC가 바통을 받습니다.

탱커에 바통을 받은 VLOC ...

② VALE의 VLOC 30척 교체 발주에서 일부 COA를 따낸 Polaris로부터 VLOC 10척 + 옵션 5척(\$750M + \$375M)을 수주했습니다. Polaris 외에 COA를 따낸 팬오션, H-line, SK해운, 대한해운의 총 10척의 조선사 선정에서도 현대중공업 또는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수주를 기대해봅니다.

③ 수주설이 알려졌던 MSC 2만TEU 11척 중, 지난주 대우조선해양이 5척 수주를 알렸습니다. 다음주에는 삼성중공업의 6척 수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추선 시장에서 바닥 신호가 계속 감지...

④ Awilco가 오랫동안 semi-sub. 발주를 추진한다고 전합니다. 노후선 교체가 신조 투자 이유이고, 한국, 싱가포르와 함께 중국 야드 두곳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의 초기 단계여서 최종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⑤ 삼성중공업은 Ensco로부터 수주한 드릴쉽은 2019년으로 2년이나 인도연기를 받아주고 있었는데, Shell과의 용선계약에 성공해 다시 일정을 앞당겨 다음주 출항합니다. 잔금 13%도 받게 됩니다.

⑥ 삼성중공업이 제작한 CAT-J 1호선이 노르웨이 작업 현장에 도착했고, 2호선도 곧 출항할 예정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구도는 여전히 빽빽합니다..

⑦ Diamond Offshore는 Chevron과의 용선계약을 바탕으로 드릴쉽 2기 발주를 준비하는데, 중국 CMHI와 건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여전히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여 중국이 수주한다면 큰 약재가 될 것입니다.

⑧ 익히 알려진 CAPEX이지만, 일본 Imabari가 610 x 80 x 11.7m의 초대형 드라이도크를 완공해 2만TEU 10척 건조 캐파를 가동합니다.

기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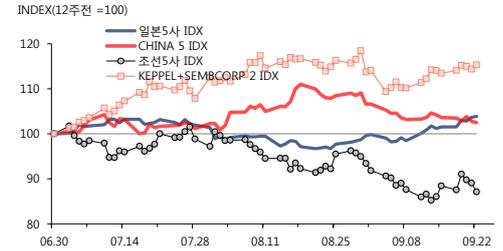
⑨ 울산 8월 수출 호조(YoY +74%)로 현대건설기계의 주가는 시장 하락에도 나홀로 크게 올랐습니다. 업황도 업황이지만, 유상증자 주주배정일(22일)을 앞둔 영향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함께 유상증자를 단행한 현대일렉트릭의 주주배정일은 26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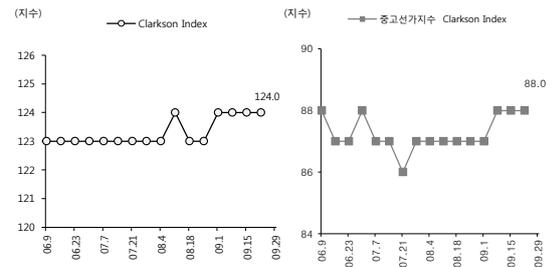
▶ 노르웨이 필드에 도착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CAT-J 1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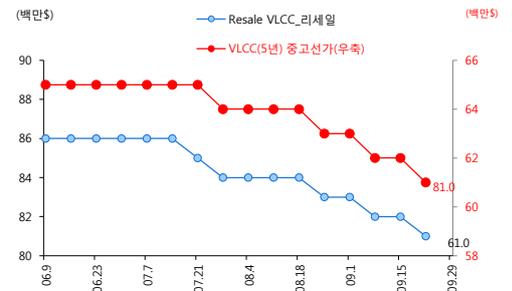
▶ 한/중/일/싱 주가 추세: 한국 언더퍼폼



▶ 신조선가지수 & 중고선가지수: 보합



▶ 탱커 리세일 및 중고선가 하락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중국, 일본의 위협

- ▼ 톡밀까지 쫓아온 中 조선, 한국 아성 시추선까지 노린다
- ▼ 일본 이마바리조선 새 도크 건설, 한국 조선3사 맹추격 태세

△ 수주와 좋은 수주설

- ▲ 현대중공업 10척+옵션 5척 VLOC 수주: VALE발 잔여 한국 해운사 수주 10척
- ▲ Awilco 노후 semisub. 교체 발주 준비: 초기 단계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치수와 중고선가치수 포함: 탱커 중고선가는 하락

- 신조선가는 전선종 제자리에 지수도 124p 포함
- 중고선가도 88p 제자리를 지켰지만, 탱커의 VLCC ~ 아프리카막스 리세일 가격과 VLCC, 수에즈막스 중고선가가 하락

▷ Cat-J 노르웨이 현지 도착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Category J 잭업릭 1호선이 노르웨이 작업장인 Oseberg & Gulfsaks 필드에 지난주 도착: 2호선도 몇주 후 출항할 예정
- 2호선은 Oseberg Vestflanken 2에서 작업 예정
- KCA Deutag은 \$900m의 8년 + 연장 옵션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Cat-J 2기를 삼성중공업에 발주함
- > 2016년말 건조 과정에서 자켓 파손 사고가 발생해 일부 공정 연기가 발생해 기존 2017년 1분기와 2분기보다 늦었지만, 결국 6월, 9월 인도됩니다.

(07월2주) △ 삼성중공업 cat-J 2기 마무리되어감

- Cat-J 중 2호선 Askepott의 인도가 지연되었지만, 완공이 임박했다고 전함: Oseberg 필드에 가을에 도착 예정
- 1호선 Askeladd는 6월에 거제 야드에서 출항

(1월4주) △ 삼성중공업의 CAT-J 잭업릭 2기 인도 스케줄 4월과, 3분기로 확인

△ DSME, Songa Offshore에 2차 소송

- 지난 7월 Songa Offshore에 패소했지만, 여전히 2개 Rig의 디자인 오류/생략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373m 소송을 2차 제기
- Songa도 DSME 측에 \$65.8m 소송 제기

(09월1주) △ Songa와 DSME의 CAT-D 소송: Songa 승

- DSME는 Cat-D 1호선과 2호선의 추가 작업과 비용이 디자인의 오류와 생략 때문이라며 \$372.8m(\$44m LD 포함) 소송을 제기(2015년)했지만
- 런던 중재법원은 Songa Offshore의 손을 들어줌

(05월2주) ▲ Songa CAT-D 4호선, 3월말 인도

- Songa 시추선들의 가동을 업데이트에서, 마지막 4호선이 3월말 DSME를 떠나, 노르웨이로 운항 중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
- 1, 2호선은 Operational Efficiency가 100%이며, 막 작업을 개시한 3호선도 89% 기록

△ 삼성중공업, 올해 첫 드릴십 인도한다...'수주 4년만'

<http://lnr.ii/nk1Dx>

삼성중공업이 이달 25일 올해 첫번째 드릴십을 인도: 지난 2013년 유럽 시추업체 엔스코(EnSCO)에 드릴십을 수주한지 4년만에
 지난 2013년 6월 엔스코에 해당 드릴십 설비를 \$582m에 수주: 이는 2012년 4월 엔스코에 \$645m 규모의 드릴십 1척에 딸린 옵션 행사
 당초 2015년 8월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엔스코측이 드릴십을 운용할 용선사를 구하지 못해 인도연기를 요청하면서 올해 2월로 인도 일정이 미뤄졌고, ...
 ... 앞서 올 1월 인도일정이 오는 2019년 3월로 또 한차례 연기된 바
 인도일정은 지연됐지만 삼성중공업은 드릴십에 대한 선수금을 포함한 87%(약 5014억6800만원)의 대금을 드릴십 인도전에 지급받음
 나머지 인도대금(약 749억원)은 오는 25일 드릴십 인도와 함께 추가로 지급
 엔스코 역시 글로벌 오일 메이저인 셸(Shell)에 드릴십을 용선하기로 하면서 열흘 뒤인 25일로 인도일정도 앞당긴 만큼 드릴십의 인도는 무사히 진행될 것으로 관측

▷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철강업계 조이는 압박

<http://lnr.ii/NenSH>

19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은 지난 달 중순 후판가격을 톤 당 3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달 말 포스코 역시 가격 인상에 동참
 국제 철광석 가격 등이 오르면서 철강사들의 생산 투입원가 부담이 커졌고, 시중가격 역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2~3차례의 추가적인 판매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이에 지난 14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철강업계에 공식적으로 후판 값 인하를 요청
 조선업계는 하반기 일감 부족에 직면하며 채산성이 크게 악화
 여기에 상반기 회복세를 보이던 발주시장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조선사들과의 경쟁도 버거운 상태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생산

△ ConocoPhillips, 북호주 Caldita-Barossa FEED 2사 선정 한창, EPC는 2019년 일정

- ConocoPhillips는 TechnipFMC, Saipem, Flour, WorleParsons, SBM Offshore, Modec, Bumi Armada의 7개 그룹의 제안에 대한 평가에 한창
- pre-FEED는 Wood Group Mustang이 2015년 마쳤고, 내년에 FEED 경쟁을 치를 2개 회사를 선택 중: 2019년 FID, 2023년 가동
- 4만톤 구조물은 신조 vs 개조, 보유/리스 등의 스펙/계약형태도 미정: 3.7MTPA 가스와 1.5백만b/d condensate
- FEED 외에 이를 제작할 조선사와의 조합은 TechnipFMC+삼성중공업, Flour+COOEC 정도만 시장에 알려짐
- ConocoPhillips와 함께 SK Energy 37.5%, Santos 25% 지분

(07월2주) △ Caldita-Barossa FEED 입찰 7월 → 2018년초 선정

- 북호주(Bonaparte basin)의 ConocoPhillips의 Caldita-Barossa FPSO 입찰
- 연초 PQ를 통과한 13개사: Aker Solutions, Amec Foster Wheeler, Fluor, KBR, JGC, Technip, Wood Group, ...
... WorleyParsons, SBM Offshore, Modec, BW Offshore, Bumi Armad, Fluor
- 입찰에서 PQ를 통과한 업체들은 서로 합치거나 또는 팀 내에 새로운 업체를 포함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 구체적인 연합/경합구도는 알려지지 않음: 한국, 중국, 인도의 조선사들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
- FEED 입찰은 이달말까지이고, 이후 ConocoPhillips는 제안을 검토해 2018년초 FEED를 결정할 예정

(16년03월) △ 호주 최대형 가스 프로젝트들 현황

- Conocophillips Caldita-Barossa & Poseidon 프로젝트 진행: 320~800m
- Chevron은 Great Gorgon과 Outer Exmouth area(900m, 30개 유정 발견)에서 Outer Exmouth에 FLNG를 적용가능하고, 여타 유정은 기존 Gorgon이나 Wheatstone에 불일 예정

▶ 시추

▲ Awilco 노후 semisub. 교체 발주 준비: 초기 단계

- Oslo 상장사인 Awilco Drilling은 2개의 노후 semi-submersible Rig를 교체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고민: 신조도 여러 계획 중 하나
- 그러나 시장은 현재의 공급 과잉, 낮은 dayrate에서 과연 신조 투자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짐
- 일단 신조를 위해 한국, 중국, 싱가포르 야드들에 ITB(Invitation to Bid)를 발송
- Awilco IR 담당자는, "리세일 매입 또는 신조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결정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설명
- 중국의 대표적 Rig 제작사 중 한국 CIMC Raffles는 2013년에 인수한 자회사(90% 지분) Basso Technology(스웨덴)의 BT 5000 design을 제시했고,
- Cosco는 Moss CS50 Design을 제시
- 한국의 DSME, HHI, 싱가포르 Sembcorp 또한 CS50 Design 제작 경험이 있음
- 현재 Awilco는 Ultra-deepwater 및 harsh environment에 더 적합한 CS50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망

▶ 기타

▷ AP Moller-Maersk, Maersk Tanker 매각: Moller family와 Mitsui 합자사가 인수

- AP Moller-Maersk는 Maersk Tanker를 Mooler family의 개인회사에 \$1.17십억에 매각
- 이를 통해 AP Moller-Maersk는, \$11.55십억에 달하는 순차입금을 일부 상환하고,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컨테이너/항만/물류 사업에 집중할 예정
- 이전에, 먼저 Maersk Oil을 Total에 \$7.45십억에 매각한 이후 두 번째 에너지 관련 사업 정리
- : 향후 Maersk Supply Service, Maersk Drilling 2개 회사에 2018년 전까지 매각할 예정으로 전망
- 한편 161척의 탱커 선대(자사선 80척)를 인수하는 측은, Moller Family와 Mitsui Co.의 합자사인 APMHI(AP Moller Holding Invest)
- Maersk Tanker 정리 소식에 AP Moller-Maersk 주가는 0.5% 상승하며 약보합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①DSD Shipping A/S→Hyundai Vinashin, PTK(50K) 2척

- 지난주 업데이트된 DSD의 MR 탱커 2척은 1,2호선, 이번주에는 옵션 행사한 3,4호선 업데이트
- (09월3주 플래쉬) DSD Shipping은 옵션 행사로,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2척을 추가 계약: 비나신 건조 몰랑
- 신조선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비나신 Tier II 슬롯으로 \$32m으로 추정됨
- 다만, 발주처는 Tier II가 아닌 Tier III 스펙이라고 주장
- 4척 시리즈 인도는 2019년 1척, 2020년 3척 예정
- DSD의 신조 투자는 2004년 MR탱커 노후선의 Renewal 성격

②MSC→Daewoo (DSME), CONT(22K) 5척

- ▲ MSC → 대우조선해양: 2만TEU 5척
- 유럽 선사예 2020년 3월까지 컨테이너선 5척을 납품하는 계약을 9266억 원에 체결했다고 21일 공시: 선사는 스위스 MSC이며 선박의 크기는 2만2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알려짐
- 이로써 대우조선은 올해 총 23척, 약 25억7000만 달러(2조90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이뤄내면서 연간 수주 목표 금액인 45억7000만 달러의 56.2%를 달성
- MSC는 최근 삼성중공업과도 컨테이너선 6척 발주 계약 협상을 진행 중

③Swan Energy →Hyundai HI (Ulsan), LNG(FSRU) 1척

- (09월1주 플래쉬) ▲ Swan Energy → 현대중공업, FSRU 1기
- 인도 Swan Energy의 FSRU 프로젝트를 현대중공업이 따냄: 5MTPA 기화용량, 180k CBM 저장용량, Gujarat 지역
- 2019년 커미셔닝을 거쳐, 2020년초 가동을 시작하고, BOOT로 30년간 운영 예정
- 이미 인도 현지의 3개 업체로부터 1MTPA 씩 판매계약을 체결
- 실제 발주는 Swan Energy의 100% 자회사 Triumph Offshore가 담당
- 또한 Swan Energy는 2번째 FSRU 투입을 검토 중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현대중공업 최대 15척 VLOC 수주

- Vale로부터 7척 용선 계약을 따낸 Polaris로부터, 현대중공업은 10척 + 옵션 5척 VLOC를 수주: 11.3억\$, 2019년~2020년 초 인도
- 신조선가는 \$75m, LNG-ready, Tier III 스펙
- 한편 선박 침몰 사건에도 불구하고 Polaris가 가장 많은 COA를 따낸 것에 대해 의문이 많은데, Polaris는 VALE랑 25년이 나 거래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그 배경인 듯
- Polaris는 24척의 VLOC를 보유 중인데, 이중 18척이 노후 개조선
- 한편 나머지 20여척의 조선사로는 한국의 HHI, DSME, 중국의 Yangzijiang SB, Bohai SB, Qingdao Beihai SB, Dalian SB, Beihai SHI, Waigaoqiao 등이 경합 중
- > 이미 6월에 Polaris로부터 2019년 인도 VLOC 3척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가 헷갈립니다.
- > 아무튼 여태껏 현대중공업+상호 40억\$ 수주했고, 이번 수주로 7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09월3주) ▲ Vale 30척의 VLOC 선대 교체할 선사 선정 완료

- 초기 12척의 선대 교체에서 Polaris의 노후개조선 침몰 이후, 용선발주 규모가 30척으로 크게 확대
- 그리고 최근 7곳의 용선발주 선사를 선정
- Polaris가 7척, ICBC FLO이 6척, 팬오션 4척, COSCO 4척, H-LINE, SK해운, 대한해운이 각각 2척씩 담당
- 일부 선사는 용선 옵션 계약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음: 옵션은 9월말까지 행사 예정
- 이번 발주 선박들은 12척씩 6개월 시차로 2019년말부터 인도될 예정
- Vale는 50척의 노후 개조선 중장기 교체할 예정이며, 더해서 수출 규모도 200백만톤에서 300만톤으로 늘릴 예정이어서, 추가 용선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 해운사들과 짝을 이룰 조선사는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중국의 다수 조선사들로 전함: Yangzijiang SB, Bohai SB, Qingdao Beihai SB 등
- △ 한편 Polaris의 Stellar 시리즈는
- 18척의 Polaris 개조선 중 5척이 2020년 이전에 리뉴얼될 예정이고, 나머지 12척도 2020년~2021년 교체될 예정
- 따라서 Dry-docking에서 BWTS 장착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함
- (06월2주) △ Polaris → 현대중공업, VLOC 3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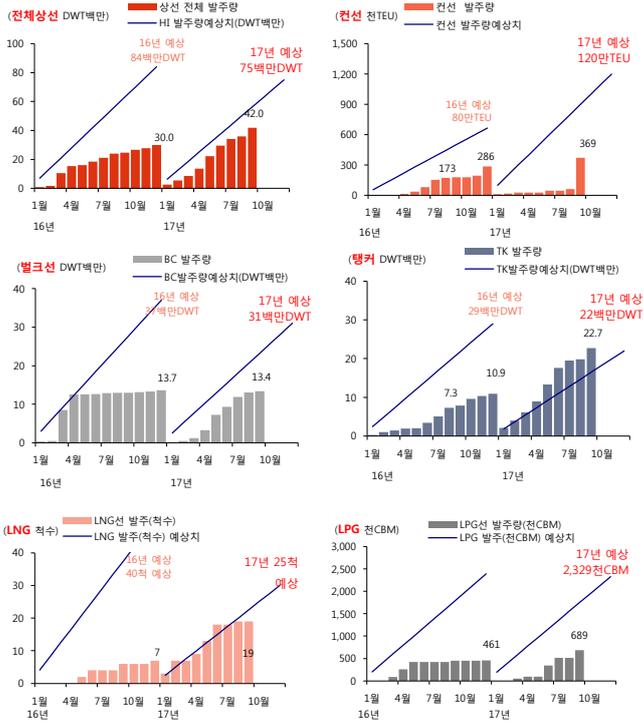
△ BrightOil, 여전히 VLCC 투자를 위해 고민 중

- 연초 현대중공업과의 VLCC 계약설이 돌았든, 홍콩 BrightOil Petroleum은 VLCC 신조투자를 위해 아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
- 1년이나 발주를 준비해왔고 늦어지고 있지만, 사측은 여전히 수많은 기회가 있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
- BrightOil은 5척의 VLCC와 4척의 아프리카막스 보유: VLCC는 2012년~2013년 현대중공업 건조, 아프리카막스 중에서는 2척을 현대중공업이 건조
- 또한 Bunker 탱커 6척을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
- (03월2주) △ BrightOil의 VLCC 6척에서 10척으로 늘어남
- 홍콩 BrightOil은 3+3척 발주를 현대중공업 등과 협의 중이었지만,
- 최근 그 규모가 5+5척으로 늘어났다고 업데이트
- 최근 VLCC 선가 하락으로 \$80m 아래에서 VLCC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시장 추정
- 계약시 2019년 중반부터 순차 인도될 예정
- 발주가 성사될 경우 BrightOil의 선대는 현재 5척에서 15척으로 3배 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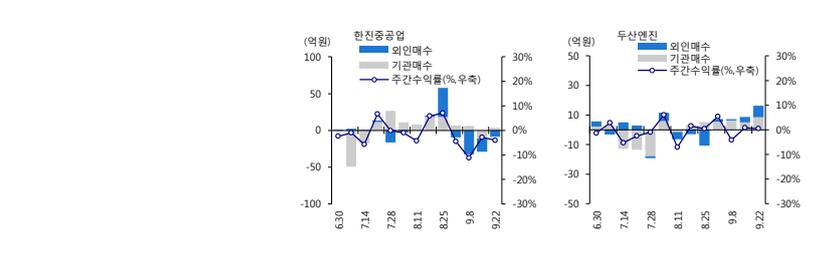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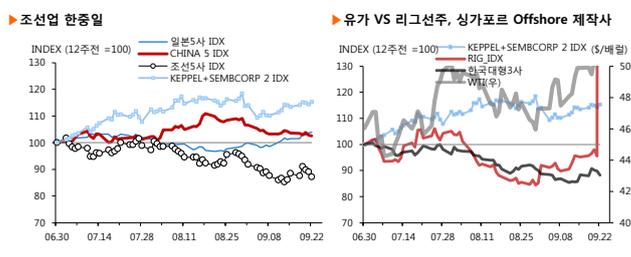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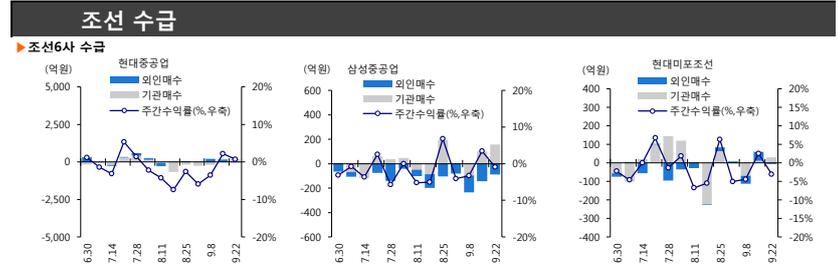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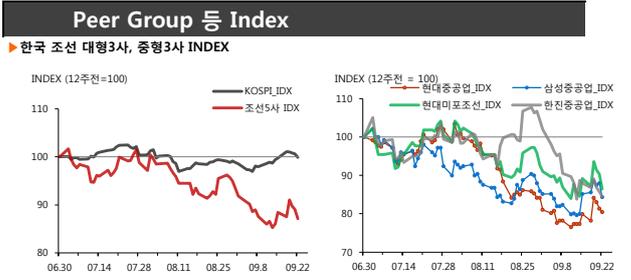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7년08월4주								
민영	Jiangsu New YZJ	17.7.24	유럽	Angelakos Hellas SA	BULK	82k DWT	2019	4
	AVIC Dingheng SB	17.8.25	유럽	SOCATRA	PTK	8k DWT	2019	2
	Fujian Mawei SB	17.7.21	중국	Shun Yuan Group	OTHERS	7k DWT	2018	1
	Hin Lee Shipyard	17.3.1	아프리카	Kenya Ports Auth.	OFF-기타	4k HP	2018	1
		17.2.1	아시아	Cheoy Lee Shipyards	OFF-기타		2017~2018	4
	17.1.1	아시아	Cheoy Lee Shipyards	OFF-기타	4k HP	2018	2	
Fujian Southeast SB	17.8.18	중국	Fujian Anda Shpg	BULK	21k DWT	2019	1	
Aulong SB Co	17.8.2	중국	Zhuhai Ferry	FERRY		2018	1	
일본	JMU Ariake Shipyard	17.7.1	일본	Mitsubishi Ore Tpt	BULK	208k DWT	2020	1
	Oshima Shipbuilding	17.8.25	북미	Foremost Maritime	BULK	85k DWT	2019	2
17년08월5주								
BIG6	Hyundai Mipo	17.8.25	중동	Bahri Dry Bulk	BULK	80k DWT	2020	4
	Samsung HI	17.8.31	러시아/CIS	Sovcomflot JSC	TK	42k DWT	2019	1
		17.8.25	북미	Teekay Shuttle	TK	158k DWT	2019~2020	2
17년09월1주								
BIG6	Daewoo (DSME)	17.9.4	한국	HMM	TK	300k DWT	2019	5
민영	COSCO Zhoushan	17.9.5	유럽	Aegean Shipping Mngt	BULK	82k DWT	2019	4
	AVIC Dingheng SB	17.9.4	유럽	Erik Thun AB	PTK	18k DWT	2020	1
	Jiangsu Hantong HI	17.7.31	Unknown	Atlantica Shipping	BULK	82k DWT	2019	1
	Fujian Mawei SB	17.9.5	중국	CNAF Haixin Shipping	PTK	15k DWT	2019	1
		17.6.1	중국	Qiming Electric Powe	해양설치	0k LOA	2018	1
COSCO Dalian SY	17.8.31	중국	COSCO Shipping	BULK	62k DWT	2019	2	
17년09월2주								
BIG6	Hyundai Vinashin	17.7.28	유럽	DSD Shipping A/S	PTK	50k DWT	2020	2
민영	Fujian Mawei SB	17.9.8	중국	Fuchuan Investment	OTHERS		2019	1
	GSI Nansha	17.7.24	유럽	TORM A/S	PTK	50k DWT	2019	4
		17.3.31	아시아	Formosa Plastics Co	PTK	50k DWT	2019	3
		17.3.24	중국	CSSC Leasing	PTK	76k DWT	2018~2019	2
17년09월3주								
BIG6	Hyundai Vinashin	17.9.11	유럽	DSD Shipping A/S	PTK	50k DWT	2020	2
	Daewoo (DSME)	17.9.20	유럽	MSC	CONT	22k TEU	2019~2020	5
	Hyundai HI (Ulsan)	17.8.30	아시아	Swan Energy	LNG	#VALUE!	2020	1
국영	Hudong Zhonghua	17.9.19	유럽	CMA-CGM	CONT	22k TEU	2019~2020	4
	Jiangnan SY Group	17.9.22	유럽	Petredex	LPG	84k cu.m.	2019	2
	Shanghai Waiqiaoqiao	17.9.19	유럽	CMA-CGM	CONT	22k TEU	2020	4
	CSSC	17.9.19	유럽	CMA-CGM	CONT	22k TEU	2020	1
민영	Yantai CIMC Raffles	17.2.1	중국	Beibu Gulf Tourism	FERRY	0k Pas.	2018	2
	Dalian COSCO KHI	17.8.1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BULK	61k DWT	2019	2
일본	Sasaki Zosen	17.9.20	일본	Toda Kisen K.K.	LPG	5k cu.m.	2019	2
	Sasebo HI	17.5.1	Unknown	Unknown	BULK	85k DWT	2019~2020	6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턱밀까지 쫓아온 中 조선, 한국 아성 시추선까지 노린다**
<http://nr.li/h6317>
 22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시추업체인 미국 '다이아몬드 오프쇼어'는 중국 자오상취국제제한공사(CMH)와 대형 드릴십 2척에 대한 건조 협상을 진행중 미국 오일메이저 세브론이 드릴십을 용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작업
 조식 드릴십 건조를 위해 한국과 유럽 조선소에 접촉했지만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때문에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짐
 조선소 관계자는 "사실 해당 협의가 본격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
 ... "만약 실제 성공적으로 건조까지 완료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에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
 중국 조선소도 소형 드릴십을 건조한 경험이 수차례 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심해용 대형 드릴십의 경우 기술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

▼ **일본 이마바리조선 새 도크 건설, 한국 조선3사 맹추격 태세**
<http://nr.li/064H1>

니케이아시아리뷰는 20일 "이마바리조선이 17년 만에 최초로 드라이도크를 건설했다"며 "이마바리조선이 초대형선박을 여러 척 건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됐다"고 보도
 이번에 지은 도크는 길이 610m, 넓이 80m, 깊이 11.7m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1330톤의 중량물을 들어올릴 수 있는 3대의 대형 갠트리크레인이 설치
 드라이도크를 새로 확보한 데 따라 길이가 400m이고 2만 개의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을 10척 건설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게 됨
 지난해 12월 수주잔량에서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전 세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 조선사 수주잔량이 일본 조선사보다 적었던 것은 17년 만에 처음

▶ **조선 빅3 독무대 LNG선, 2019년 발주 쏟아진다**
<http://nr.li/C0Tuz>

올해 발주된 LNG선 17척 가운데 절반이 넘는 9척의 LNG선을 수주한 조선업체
 최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해운 컨퍼런스(London International Shipping Week)'에 참석한 선박 중개업체인 브레마(Braemar ACM Shipbroking)는
 오는 2019년부터 LNG선 발주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
 이는 지난 2014년(69척)~2015년(37척) 전세계적으로 발주된 100척 이상의 LNG선이 2년의 건조과정을 거쳐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관계자는 "2019년 말부터 40여척의 LNG선 발주가 예상된다"며 ...
 ... "이 중 내년 약 10척의 LNG선 발주가 추진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30척 이상의 LNG선 추가 발주가 2019년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 최근 3년간의 LNG 수출 프로젝트 FID가 크게 줄었음을 감안하면, 2018년 신규 프로젝트 진행, 2019년 LNG 신조의 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 당사의 VIEW도 비슷합니다.

▶ **韓 vs 中 기술력 차이, 가깝지만 먼 3.4년**
<http://nr.li/tz01>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조선사들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온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긴 어렵다"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년마다 발표하는 기술수준평가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분야의 최고기술국인 유럽(EU)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수준은 82.4%, 기술격차는 2.3년
 중국의 기술수준은 63.2%, 기술격차는 5.7년
 그럼 3.4년의 격차에 대해 흥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막연한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따져보자면 격차가 꽤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
 ... "조선업보다 사이클이 빠르다곤 해도 반도체 등 다른 산업의 격차는 보통 1~2년"이라고 설명

△ **LNG추진선박·병커링 산업 발전방안 논의**
<http://nr.li/RvGuK>

한국LNG병커링산업협회(회장 박인환)가 오는 28일 대구EXCO에서 '2017년 LNG병커링 세미나'를 개최

▶ **현대중공업 보도**

▽ **현중, 해양플랜트 수주 사활...내년에는 일감도 바다**
<http://nr.li/zGwiP>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33개월째 해양부문 수주가 없다. 남은 일감을 뜻하는 수주잔량은 지난달 말 기준 해양부문의 7개 프로젝트
 2015년 9월 23개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을 밑도는 수준
 현재 조선소 야드 내에서 건조 중인 프로젝트는 중동지역에서 수주한 나스르2 플랫폼 1건 뿐으로, 이마저도 내년 상반기 인도될 예정
 지난 6월 기준 해양플랜트부문 직원은 총 4261명. 2015년 6월 5371명과 비교했을 때 1110명(20%) 감소



▷ 현대삼호중, 기타비상무이사에 송인준 IMM PE 대표 선임

<http://lnr.li/vfQYe>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의 송인준 대표가 현대삼호중공업의 이사를 맡음
IMM PE는 지난 4월 현대삼호중공업에 3000억원의 투자를 결정
현대삼호중공업은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지)를 통해 전환우선주를 신주 발행하고, 이를 주당 5만6000원에 IMM PE가 모두 사들인다는 조건
이후 IMM PE는 투자규모를 4000억원으로 늘림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공업, 글로벌 안전관리 전문가 영입

<http://lnr.li/W7aMK>

신임 안전경영본부장에 글로벌 안전관리 전문가인 피터 헤이워드 전무를 선임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안전경영본부를 신설하며 안전관리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
피터 헤이워드 전무는 1982년 엑손의 안전 분야 엔지니어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35년간 오일메이저와 글로벌 엔지니어링에서 HSE(안전·환경·보건)를 담당해 온 전문가로 평

▲ 삼성중, LNG-FRSU 핵심장비 재기화시스템 국산화 성공

<http://lnr.li/L46At>

LNG-FRS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의 핵심 장비인 LNG 재기화시스템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국산화했다고 21일 밝힘
새 시스템의 이름은 'S-Regas(GI)': 글리콜(Glycol) 혼합액을 이용해 LNG를 기화시키는 방식의 시스템
S-Regas(GI)는 바닷물로 LNG를 직접 가열해 기화시키는 중전 방식에 비해 부식의 우려가 적고, 재기화에 사용되는 에너지도 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이날 새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고객사를 대상으로 실증설비 시연회를 개최

△ 삼성중공업, 성동조선에 세계 1위 LNG추진선 노하우 가르친다

<http://lnr.li/Btjii>

성동조선은 지난 7월 그리스 선주 키클라데스로부터 11만5000t급 원유운반선 7척(2척은 옵션)을 3억달러에 수주
이 선주는 최근 성동조선에 옵션 물량을 LNG추진선으로 바꿀 수 있는지 타진
삼성중공업은 작년 1월부터 성동조선의 영업 구매 생산 수주 등을 맡아 '위탁경영'에 준하는 경영협력
성동조선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요청에 따른 것
지난해 시작된 성동조선 경영 지원 작업의 일환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 상반기 임의 회계감사서 '적정의견'

<http://lnr.li/80Ta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거래재개를 위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대우조선은 지난해 재무제표가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상황

▽ 대우조선 "이란 해양 플랜트 공사, 본계약 없이 종료"

<http://lnr.li/u4NUJ>

발주처와 기술 사양 및 계약관련 사항에 대해 지난 17일 MOU의 효력이 만료돼 관련 협의가 종료
조희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해 9월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나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
지난해 4월 대우조선이 이란에서 약 1조3000억원의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한 재공시
당시 한 매체는 대우조선이 이란 국영 석유사가 발주할 예정인 5기의 '책임 리그'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

▲ 대우조선해양, 9000억 원 규모 컨테이너선 수주

<http://lnr.li/p3biQ>

유럽 선사에게 2020년 3월까지 컨테이너선 5척을 납품하는 계약을 9266억 원에 체결했다고 21일 공시
: 선사는 스위스 MSC이며 선박의 크기는 2만2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알려짐
이로써 대우조선은 올해 총 23척, 약 25억7000만 달러(2조90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이뤄내면서 연간 수주 목표 금액인 45억7000만 달러의 56.2%를 달성
MSC는 최근 삼성중공업과도 컨테이너선 6척 발주 계약 협상을 진행 중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수익 위해 신규수주 속도조절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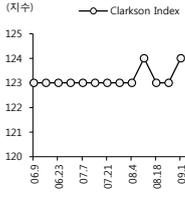
<http://lnr.li/adsoQ>

19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미국기업과 맺었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설비(LNG-FRSU) 건조의향서 효력만료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옴
관계자는 "발주처가 연장을 요청한다면 건조의향서 효력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
... "발주처와 건조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으며 건조의향서 효력이 만료돼 수주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올해 9월 현대상선과 초대형 유조선(VLCC) 본계약을 맺긴 했지만 이 역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수 개월 지연되다 간신히 성사
정성립 사장이 무작정 신규수주를 늘린다고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신규수주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저가수주를 하게 되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
대우조선해양이 '작지만 단단한 알짜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점도 선별수주설에 설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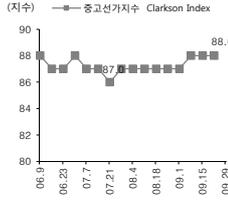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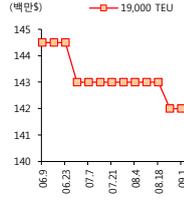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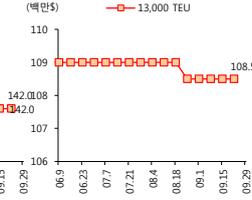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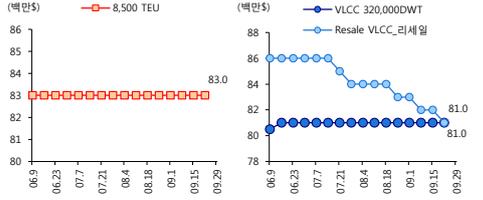
▶ 메가 울트라막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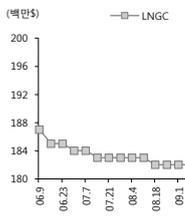
▶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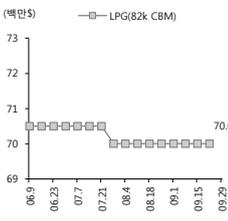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 ▶ 탱커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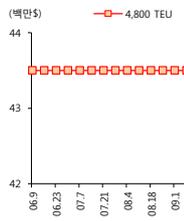
▶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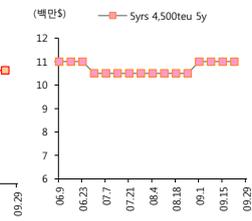
▶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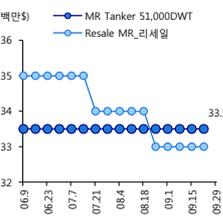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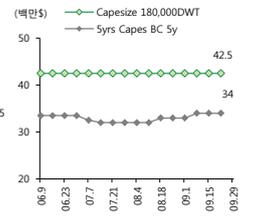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중고선가 4,500teu



▶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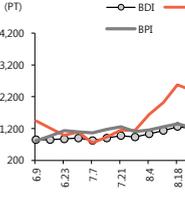


▶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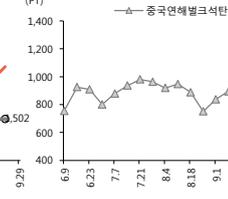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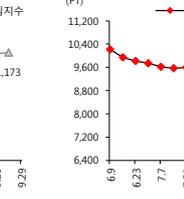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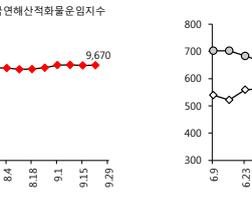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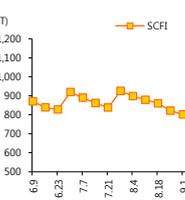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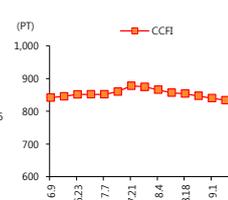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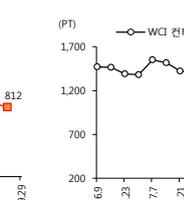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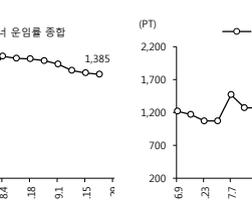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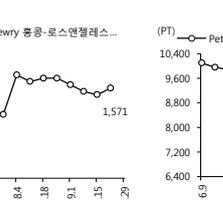
▶ 컨선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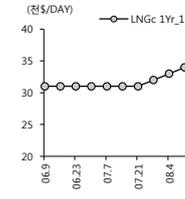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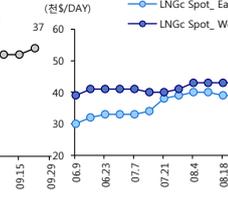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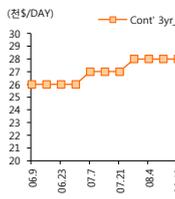
▶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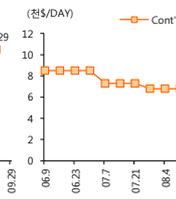
▶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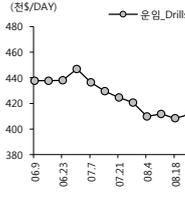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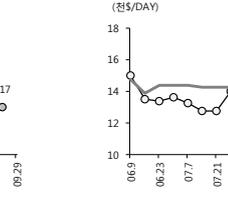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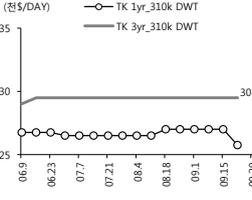
▶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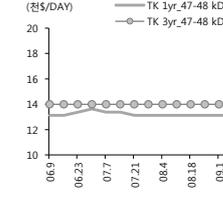
▶ 벌크선 - 케이프



▶ 탱커 - VLCC



▶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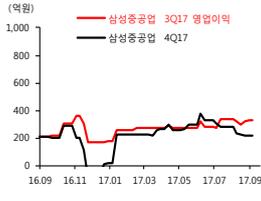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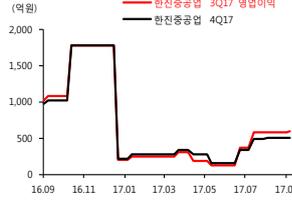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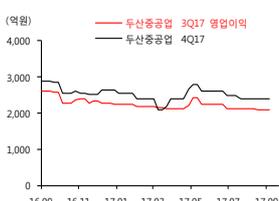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두산중공업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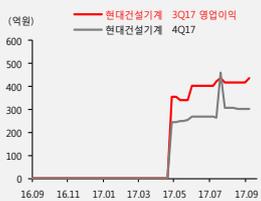
▶ 두산엔진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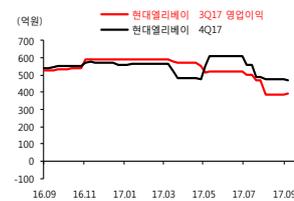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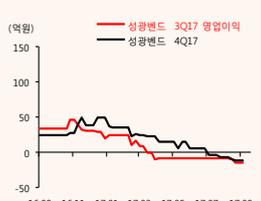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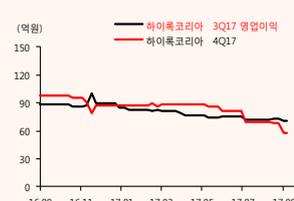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8.26	17.09.02	17.09.09	17.09.16	17.09.22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13,337	4,124	6,038	6,241	12,065	15,393	19,290	25,579	25,579	310%	112%	5.6	142,000	
	삼성중공업	281	307	299	271	276	275	285	284	284	5%	3%	36.9	10,500	
	현대미포조선	4,027	3,963	4,308	6,356	9,468	9,533	9,759	9,729	9,729	53%	3%	9.7	94,200	
	한진중공업	157	14	-269	-123	-289	-411	-418	-385	-545	적지	적지	-7.0	3,800	
두산	두산중공업	1,693	1,519	1,511	1,425	840	689	689	689	601	-58%	-28%	27.7	16,650	
	두산인프라코어	788	796	798	832	878	889	890	888	888	7%	1%	9.4	8,360	
	두산엔진	265	172	178	193	174	177	177	177	159	-18%	-9%	25.7	4,09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24,344	28,411	30,679	31,298	30,744	30,769	30,769	30,846			13.0	401,000	
	현대일렉트릭	0	26,212	27,046	28,368	27,300	26,997	26,424	26,424	26,323			9.8	258,000	
	LS산전	3,458	3,596	3,664	3,706	3,862	3,900	3,900	3,900	3,900	5%	1%	14.1	55,000	
	현대엘리베이터	5,598	5,323	5,326	5,351	4,569	4,420	4,420	4,420	4,290	-20%	-6%	11.3	48,300	
방산	현대로템	756	718	639	608	502	484	465	469	469	-23%	-7%	36.8	17,250	
	한국항공우주	2,592	2,520	2,496	2,321	1,625	1,625	1,625	1,553	1,553	-33%	-4%	28.3	43,900	
	한화테크윈	2,318	2,270	2,232	2,037	1,917	1,858	1,807	1,793	1,793	-12%	-6%	19.0	34,000	
	LIG넥스원	3,836	3,782	3,733	3,501	4,651	4,651	4,651	4,664	4,664	33%	0%	15.4	71,600	
피팅	성광벤드	49	-44	-83	-82	-100	-92	-148	-148	-148	적지	적지	-62.1	9,190	
	태광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47.7	9,000	
	하이록코리아	1,895	1,913	1,888	1,837	1,837	1,869	1,869	1,873	1,873	2%	2%	11.5	21,500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8.26	17.09.02	17.09.09	17.09.16	17.09.22	2017	2018	2017 PBR		
조선	현대중공업	310,342	222,418	210,808	207,352	211,387	211,417	212,707	218,598	218,598	12%	1%	0.6		
	삼성중공업	17,519	18,160	18,771	18,776	18,717	18,717	18,724	18,723	18,723	2%	1%	0.6		
	현대미포조선	108,798	113,259	113,062	116,073	119,203	120,952	121,335	122,063	122,063	8%	2%	0.8		
	한진중공업	10,447	10,278	8,453	8,810	8,616	8,616	8,679	8,656	8,804	-6%	3%	0.4		
두산	두산중공업	31,116	31,097	31,005	30,765	30,089	30,062	30,062	30,062	30,126	2%	5%	0.6		
	두산인프라코어	10,527	10,478	10,514	10,622	10,616	11,047	11,050	10,987	10,987	8%	9%	0.8		
	두산엔진	7,640	7,857	7,877	7,920	7,956	7,921	7,921	7,921	7,893	2%	1%	0.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223,490	231,663	231,665	232,512	231,895	267,853	267,853	267,992	12%	14%	1.5		
	현대일렉트릭	0	229,915	232,450	232,450	225,780	225,780	243,098	243,098	242,828	11%	13%	1.1		
	LS산전	38,912	39,174	39,138	38,874	39,086	39,113	39,113	39,113	39,113	10%	11%	0.0		
	현대엘리베이터	40,541	38,166	37,757	37,757	35,026	35,026	35,026	35,026	35,026	12%	12%	1.4		
방산	현대로템	17,125	17,174	17,059	17,035	16,938	16,882	16,860	16,854	16,854	3%	5%	1.0		
	한국항공우주	16,535	16,330	16,307	16,045	15,370	15,370	15,370	15,370	15,370	10%	15%	2.9		
	한화테크윈	47,770	45,533	45,707	45,387	45,192	45,013	45,013	45,013	45,013	4%	5%	0.8		
	LIG넥스원	31,320	31,483	31,402	31,150	32,210	32,210	32,210	32,229	32,229	14%	13%	2.2		
피팅	성광벤드	16,528	16,529	16,554	16,540	16,538	16,564	16,479	16,479	16,479	-1%	1%	0.6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5		
	하이록코리아	23,983	24,035	23,970	23,776	23,849	23,800	23,800	23,800	23,800	8%	7%	0.9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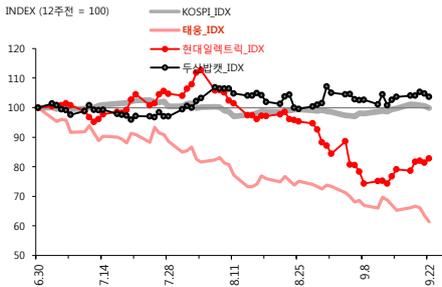
이 주의 차트

▶ 미국 허리케인 피해지역에 투입된 밥캣의 SSL: 두산밥캣은 3.7억\$ 규모 구호장비와 성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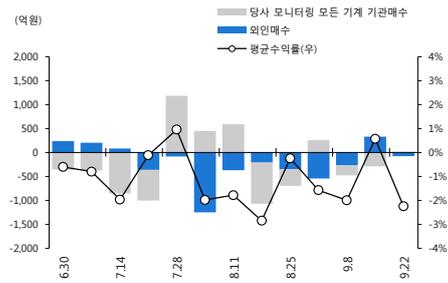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할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율



기계 업종 뉴스

탈원전 & ESS

▽ 포스코, 현대일렉트릭과 현대로보틱스 보유지분도 매각할 듯

<http://lnr.li/trtHoI>

포스코는 6월19일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현대중공업 보유주식 전량 매각: 모두 110만 주를 팔아 1,905억 원이 넘는 유동성을 확보
15일 포스코에 따르면 13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현대건설기계 주식 6만9653주를 매각: 현대건설기계 주식 전량을 매각해 233억 원의 현금을 마련
현재 들고 있는 현대일렉트릭, 현대로보틱스 등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지분을 올해 안에 정리할 수도 있음
: 포스코는 현재 현대일렉트릭, 현대로보틱스 지분 1.94%씩을 보유

건설기계

△ '건설기계에도 IT 접목'...두산커넥트 복미 출시

<http://lnr.li/DQc6n>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 중장비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적용한 '두산커넥트'를 미국 시장에 출시
건설기계의 위치와 가동 상황, 엔진과 유압계통 부품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하면서 작업장 관리,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
2015년 이후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두산커넥트를 선보인 바 있음

△ 두산 북미지역 계열사,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구호장비 및 성금 지원

<http://lnr.li/Rmokm>

두산밥캣, DTS 등 북미 지역의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연이은 허리케인으로 발생한 미국 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
... 미화 32만5000달러(한화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구호 장비와 성금을 지원

큰 기계들

▽ 두산중공업 신용등급 하향압력 커졌다

<http://lnr.li/VOYCY>

나이스신용평가 21일 두산그룹 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A-(부정적) 신용등급의 강등 조건을 충족한 상황: 별도 재무제표 기준 총차입금이 EBITDA의 10배를 넘어섰고, ...
... 순차입금의존도(총자산/순차입금)는 35%를 상회

△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 신용등급 개선 가능성

<http://lnr.li/VOYCY>

나이스신용평가 21일 두산그룹 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BBB(부정적)의 두산인프라코어와 BBB+(부정적)의 두산엔진 신용등급은 개선 가능성 있다고 평가
두산인프라코어: 영업수익 회복, 두산밥캣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차입부담 완화
두산엔진: 두산밥캣 지분 감안 시 차입 부담 크지 않은 수준, 영업수익성 회복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현대차, 463억원 규모 현대로템 토지·건물 매입

<http://lnr.li/6BxcP>

경기도 의왕시 삼동 내 현대로템의 토지 및 건물을 463억2800만원



한진중공업

▲ 원도심 속 한진중 영도조선소 이전, 논의할 만하다

<http://lnr.li/zWmZP>
<http://lnr.li/0ATov>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D)은 최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이전 문제를 거론 : 부지 26만㎡의 영도조선소가 자갈치시장과 함께 원도심 재생의 선도지역이 되어 한다는 취지 개항 이후 부산항 최대 프로젝트인 북항재개발도 이곳을 포함해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음 부산항만공사도 1조 2000억 원으로 조선소 부지를 매입해 장차 이곳을 근대산업유산 명소로 추진한다는 계획 한진중공업과 협력업체 이전에는 50만㎡가량이 필요 후보지 2곳 중 감만-신감만부두는 부지가 100만㎡에 이르지만 터미널 운영사와의 계약문제 등으로 이전 용지가 부족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북항 최외곽에 위치한 부지 117만㎡의 신선대부두

▷ 한진중공업, 필리핀 계열사 유상증자 결정

<http://lnr.li/hFCd0>

필리핀 계열사 수빅조선소 법인이 568억5000만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1일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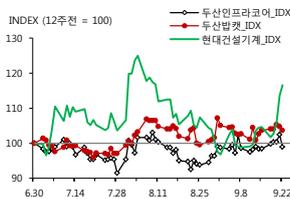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필리핀 계열사에 791억 출자전환 결정

<http://lnr.li/vW6Cu>

한진중공업(097230)은 필리핀 계열사(HHIC-Phil Inc.)에 791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식 당사가 보유한 HHIC-Phil Inc.에 대한 미회수 대여금을 HHIC-Phil Inc.의 자본으로 출자전환하는 것 : HHIC-Phil Inc.의 자본금 증가 없이 주식발행초과금(APIC) 증가 방식

건설장비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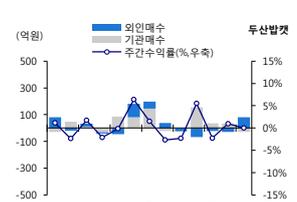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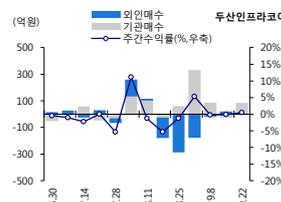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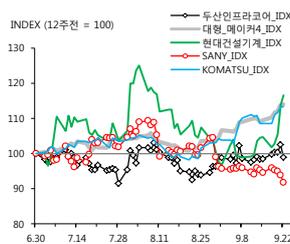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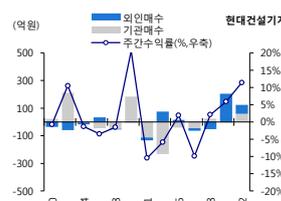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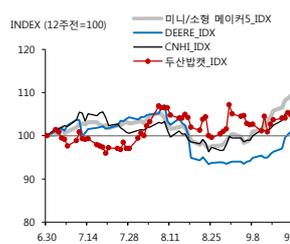
▶ 건설장비 메이커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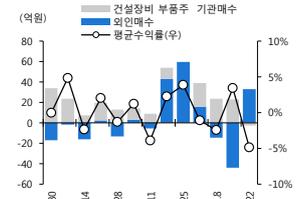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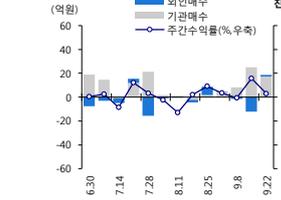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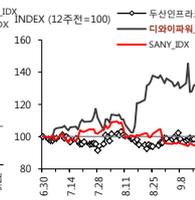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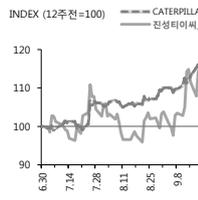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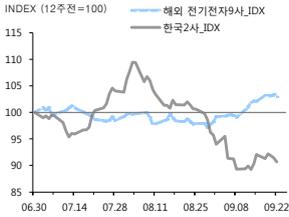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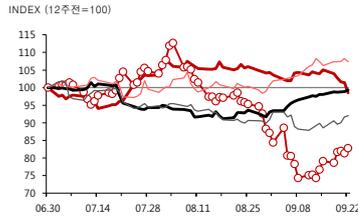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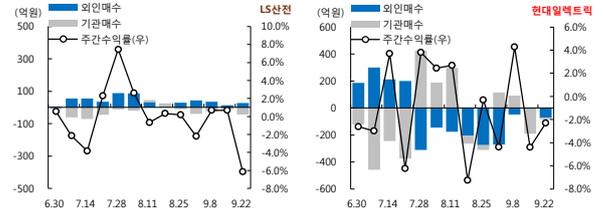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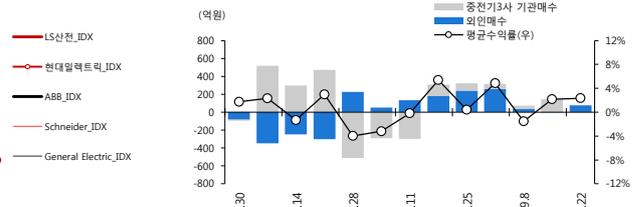


▶ 한국 중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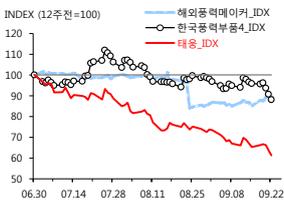
중전기 수급

▶ 중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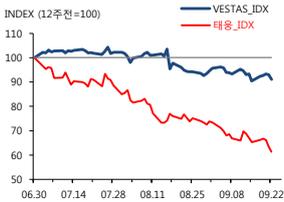


중력

▶ 한국 중력 부품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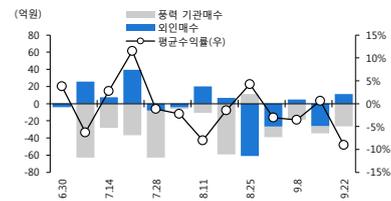


▶ 한국 중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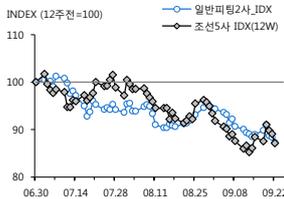
중력 수급

▶ 중력부품4사 수급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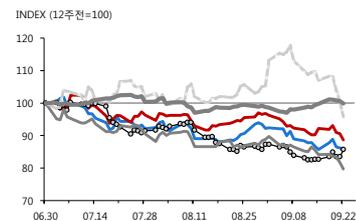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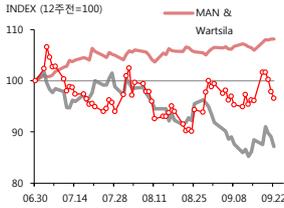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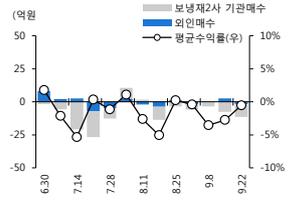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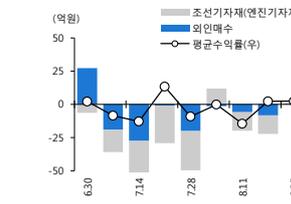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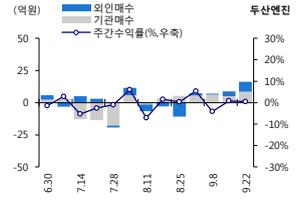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제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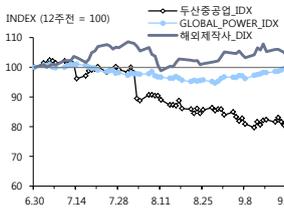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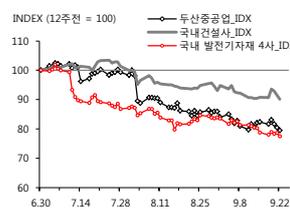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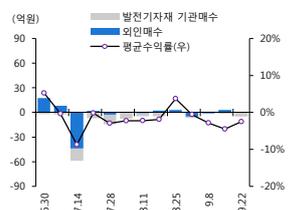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발전업 수급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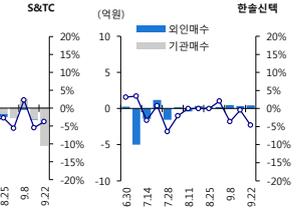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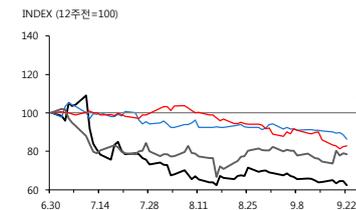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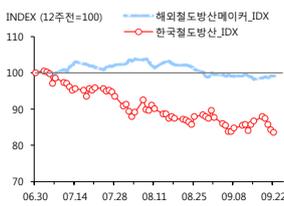
주식) 비에이지아이, S&TC, 한술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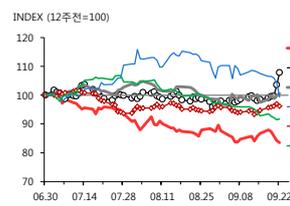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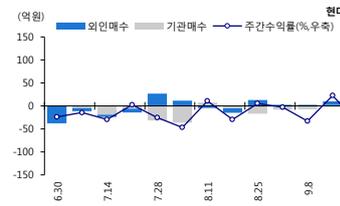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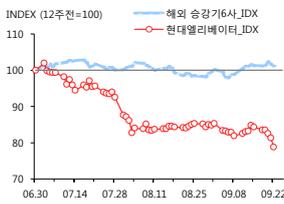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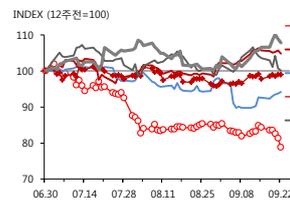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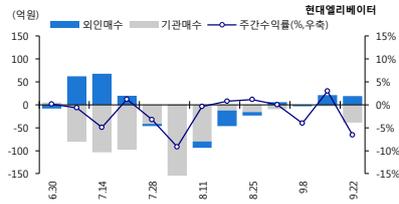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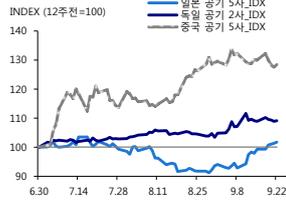


공작기계

▶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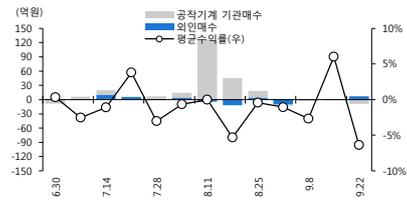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자의견 비율(%)	89.2%	10.8%	-